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이라기보단 어학원 느낌이다. 시내와 15-20분 정도 떨어져 있다. 학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다. 편의점은 30분 정도 걸어야 한다.
수업	큰 방 안에 작은 방들로 나뉘어져 있는데, 넓은 곳도 있고 굉장히 좁은 방도 있다. 1:1수업 4시간 그룹 수업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다. 레벨 테스트에 따라 수준별로 책과 그룹이 정해진다. 선생님들은 모두 친절하시고 정해진 수업 양이 없고 자신이 소화하는 만큼 진도를 나간다. 회화나 문장 구사력을 늘리고 싶다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추천한다. 선생님들과 더 빨리 친해질 수 있고, 영어에 자신감이 생긴다. 에어컨을 아낌없이 틀어주기 때문에 걸칠 옷을 가져가야 한다.
Activity	첫 날에 진행하는 시티투어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시간이 없어서 인증사진만 찍고 바로 이동했기 때문에 뭘 구경하는 건지 모르겠다. 많이 걸어야 하기 때문에 편한 신발과 휴대용 선풍기가 필수이다. 요트투어와 리조트는 정말 좋았다. 하지만 수영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지루할 수 있다. 5시간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놀거리를 챙겨 가는 것을 추천한다. Fun Friday ; 금요일마다 정해진 옷을 입는 행사가 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포토존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낮에는 매우 덥다. 건기여서 많이 습하진 않았지만 소나기가 자주 온다. 밤에는 선선하다. 일교차가 생각보다 커서 감기에 걸리는 친구들도 많았다. 여름용 긴 팔이나 가디건을 꼭 챙겨야 한다.

안전	딱히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지만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밤에 여자끼리 바다를 돌아다니면 조금 위험하다고 한다.
숙소	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 외부 숙소( ) 기타( ) 내가 있던 방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벌레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하루에 한 번씩은 다른 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던가 수도가 고장났다던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틀에 한 번씩 방 청소를 해주시기 때문에 매우 청결하고 시설도 생각보다 괜찮았다.
식사	학교식당(v) 홈스테이 ( ) 외부식당 (v) 기타( ) 학교 식당 밥은 한식으로 제공되는데 굉장히 맛있었다. 고추참치나 김을 가져와서 먹는 친구들도 있었다. 저녁은 주로 외부에서 먹었는데 물만 조심하면 될 것 같다. 가끔 메뉴에 따라 매우 짠 음식이 있으니 덜 짜게 해달라고 말하면 된다. 정수기가 보이지 않는 식당에서 물을 먹으면 물갈이를 하게 된다. 음료도 아이스티나 주스 몇 가지는 물에 분말을 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교통	에프비와 택시 두 가지를 주로 이용하게 된다. 버디 선생님들이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 에프비를 불러주시기도 한다. 보통 14-15페소. 에프비가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다. 친구들과 나가는 시간을 맞춰 에프비를 부르는 것이 좋다. 기숙사로 돌아올 때는 바가지가 심하다. 택시는 보통 140-150페소인데 200-250으로 부른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에프비 타는 것이 낫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740,000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 용돈	$500	한화 약 56만원
보험료	32,000	
합계	1,332,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 겨울에 간다면 긴 팔, 가디건, 후드집업 등 걸칠 것 필수로 챙기기
- 상비약은 종류별로! 내가 아프지 않더라도 친구들이 꼭 아프다. 오피스에도 약이 있지만 자신에게 잘 맞는 약을 가져가는 것이 더 좋다.

- 선생님들 선물 챙기기 보통 7명의 선생님과 수업을 듣는다.
- 트레이닝복 챙기면 편하다. (수업이나 목요일 오후 액티비티 시간에 유용)
- 과도(방에서 망고나 과일 잘라먹기 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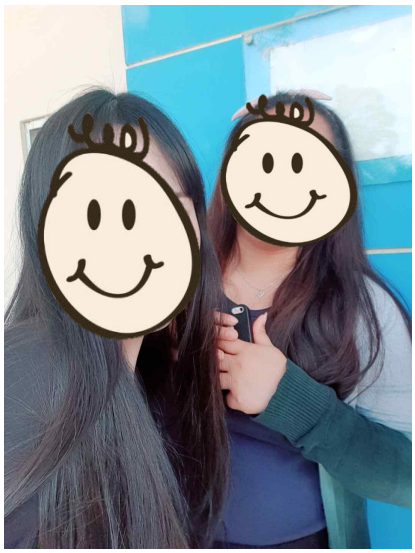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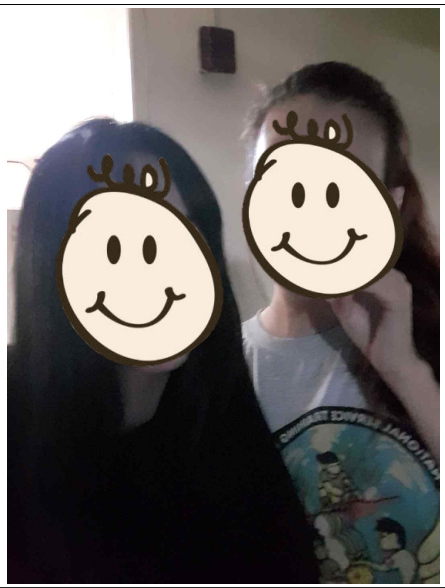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굉장히 즐겁고 알찬 방학이었다. 정말 잘 다녀온 것 같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영어가 유창해진다거나 실력이 막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 회화가 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
친구와 함께 신청해도 좋지만 다들 가서 친해지기 때문에 혼자 신청해도 상관없다.
공부는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다. 자기 전에 리딩 수업 단어를 찾는다던가 토익 스피킹 복습을 하거나 하면 수업에 잘 따라갈 수 있다.
첫 레벨테스트에서 30등대였던 친구가 파이널 테스트에서 10등대로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로 상위권이였던 친구가 하위로 내려가기도 한다.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비슷하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하기 나름대로 느는 것 같다.
굉장히 재미있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Fun Friday – Socks day

졸업식

교내 카페테리아		토익스피킹
		
1:1 Teacher. Tep		1:1 Teacher. Khali